

간호사 위한 치매전문교육 실시

간협,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 선정돼

대한간호협회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등을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다.

간호협회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위탁 '치매 전문교육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호협회는 2010년부터 매년 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치매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으로 오프라인교육 24시간, 온라인교육 8시간, 실습교육 8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진행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치매에 관심 있는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실시된다.

오프라인 1차 교육은 7월 2~4일, 2차 교육은 7월 9~11일, 3차 교육은 10월 15~17일 열린다.

교육은 경기도 용인 KNA연수원에서 실시된다.

이론 강의에서는 △치매대상자 간호사례 △지역 사회 자원활용 및 연계서비스 제공 △기록 및 평가 △치매대상자의 간호 △치매대상자의 영양관리 △치매 약물요법 및 비약물요법 △치매대상자 가족교육 및 상담 △치매의 경과와 진단기준 및 감별진단 △문제행동심리증상 이해와 관리 △치매대상자 신체증상 돌봄 등이 다뤄진다.

이번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을 수료한 간호사가 심화과정 (32시간)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 치매특별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대상자 방문간호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심화과정 일정은 7월에 공지될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한센인의 어머니 마리아노와 마가렛을 만나다"

간협, 간호사데이 힐링 프로그램

대한간호협회 KNECC(Korean Nursing Education Credentialing Center)는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 간호사 마리아노와 마가렛과의 만남' 주제로 'KNA와 함께 하는 간호사데이'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리아노와 마가렛에서 함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호사 마리아노와 마가렛의 삶을 통해 존중과 배려, 봉사를 실천하는 희망사회를 만들고,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힐링 프로그램은 총 7차례 열린다. 1차는 5월 21~22일, 2차는 6월 11~12일 진행됐다. 3차는 6월 25~26일, 4차는 9월 24~25일, 5차는 10월 15~16일, 6차는 10월 22~23일, 7차는 10월 29~30일 열린다. 소록도 마리아노·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간호사들은 (사)마리아노와 마가렛 이사장인 김연준 신부의 특강 '그래도 사람에게서 희망찾기'를 듣고, 영화 '마리아노와

마가렛'을 관람했다. 한센병박물관, 중앙공원 등을 방문해 한센인들의 삶의 역사와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아노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돌아봤다. 의료인 필수교육 인정 프로그램인 '의료법과 간호정책'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마리아노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간호학교를 졸업했다. 구호단체 다미안재단을 통해 마리아노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남아 40여년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일했다. 국민훈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마리아노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영국 민주천위원회가 발족돼 활동 중이며, 대한간호협회는 후보 추천을 지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마리아노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100만 서명운동 www.koreanurse.or.kr

의제'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공고히 한다.

의료인, 보건소 등의 결핵사업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한다.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매뉴얼을 개발한다. 결핵퇴치를 위한 국제공조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④-2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UN간호원 대표 쉐스 소령이 쓰고, 대한간호협회 이영복 제1부회장이 번역한 '격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한사람의 힘은 보잘 것 없어도

단결이 잘된 간호협회는 목적을 달성한다

주단위로는 각 부문에서 간호지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에게 공표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Workshop(공작실= 토의식으로 하는 연구회)이 개최되어 토의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회로서 아무리 세밀하고 철저하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간호원 한 개인 개인이 정한 수준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교통의 편리와 병원 관리자의 협력이 우리 간호원을 모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 50년간 미국의 인구는 감절이 늘었습니다. 그 50년 동안 현직에 종사하는 간호원 수도 최고도로 올라가서 현재는 1900년도의 수의 20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는 요구되는 간호원의 수는 인구의 증가비례보다 훨씬 더 크므로 아무리 간호원이 많이 나와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요구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에 처한 한국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적당히 해나가려면 많은 어려운 문제가 의례히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간호를 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TeamPlan(간호반)을 조직해서 일하는 것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발전은 언제나 감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간호협회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목적지에 아직 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망할 것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시련을 이기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의사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능률 여하에 따라 그들의 여러분을 향한 존경과 지지의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 내에 있는 모든 간호원들을 여러분들 단체 안에 다 포섭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한사람의 작은 힘은 보잘 것 없으나 단결이 잘된 조직체로서는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능히 달성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실망할 때도 있고 뒤로 물러가는 듯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진보는 그리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업에 몸을 바친 여러 선구자들의 고충과 눈물의 결실로 됩니다. 체면 잃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들이 맡은 환자와 여러분의 기관과 단체를 위하여 진정으로 최선을 다함을 스스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과 같이 '등불을 계승하는 자'로서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2030년까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추진

커뮤니티케어와 연계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을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약 5명이 사망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대책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 관리 지원 강화 및 사각영역 해소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병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외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면제한다.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초기평

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안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살보는 통합수가를 신설한다.

다제내성, 비수용,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요리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결핵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를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한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제 관리=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의 연구에 힘쓰고, 민·관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

2020년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신규 간호사 모집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
순천향과 함께 할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관 및 전형				
산하병원명	접수기간	접수방법	전형방법	문의사항
서울병원	2019.07.01.(월) ~ 2019.07.13.(토)	http://www.schmc.ac.kr/seoul 인재채용 ⇒ 온라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서류전형 ⇒ 전공면접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신체검사 ⇒ 최종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총무팀 연락처 : 02-709-9873 / 이메일 : 20170051@schmc.ac.kr
부천병원	2019.07.01.(월) ~ 2019.07.13.(토)	http://www.schmc.ac.kr/bucheon 인재채용 ⇒ 온라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서류전형 ⇒ 전공면접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신체검사 ⇒ 최종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총무팀 연락처 : 032-621-5645~6 / 이메일 : mina1208@schmc.ac.kr
천안병원	2019.06.06.(목) ~ 2019.06.26.(수)	http://www.schmc.ac.kr/cheonan 인재채용 ⇒ 온라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서류전형 ⇒ 전공면접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신체검사 ⇒ 최종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총무팀 연락처 : 041-570-2014,2017 / 이메일 : sdkim@schmc.ac.kr
구미병원	2019.09.16.(월) ~ 2019.10.13.(일)	http://www.schmc.ac.kr/gumi 인재채용 ⇒ 온라인 입사지원 바로가기	서류전형 ⇒ 전공면접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 ⇒ 신체검사 ⇒ 최종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총무팀 연락처 : 054-468-9542 / 이메일 : pmg1206@schmc.ac.kr

* 각 병원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